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4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가을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9월의 첫 주일 아침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억류되어 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고국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이 컸던 만큼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문제 해결에 큰 도움 준 여러 나라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반복되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 많았지만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욕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휩싸여 갈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하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교 독 문 ..... 23. 시편 98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광권희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 5:1-16 ..... 인도자

II. 창 1:1-5 ..... 고광송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바로잡기(2) ..... 김재흥 목사

II. 빛이 생겨라 ..... 김준우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현신의 찬송 ..... 458.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함께
- 헌금봉헌 ..... 다함께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의 낮과 밤 모두를 비추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빛으로 인해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환한 빛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외로이 지내는 주의 자녀들과 더욱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선교회별 월례회	숫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0-24)
찬양 인도 : 장성호 선생	정해권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박홍재 권사

<b>9월</b>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애 진정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중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문인옥

##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00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로 이 책은 지금까지 9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지구상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날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 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블랙 아프리카의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전인구의 36퍼센트가 굶주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북한의 상황도 절망적이다. 1990년대에 비해 곡물의 수확은 늘었지만, 취약한 토지소유 구조, 비료와 농기구의 부족, 만성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곡물생산량이 최저생계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FAO는 2006년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80만 톤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수확량이 인구의 최저생계선을 15퍼센트쯤 밀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2,300만 인구의 다수가 단백질, 비타민, 지방, 그리고 이른바 ‘미량 영양소’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 달 정도의 춘궁기에는 고통이 특히 심하다. 그 시점이면 이미 그 전체에 수확한 곡물은 바닥이 나버려, 북한 주민들은 별 수 없이 쥐를 잡아먹거나 풀을 뜯어 먹거나 일부 유용한 가축들을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2004년 유니세프와 FAO는 북한 아동의 영양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의 37퍼센트가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수유모의 30퍼센트가 영양실조로 빈혈증세를 보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젖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사람들은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거나 돈으로 사서 목숨을 부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농업 인프라 정비를 위한 투자 부족과 집단농장에 만

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농민들의 형편은 참담하다. 또한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하는 도시 인구(북한 인구의 70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한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2년 북한 정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그 결과 실업자가 급증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개는 고통스런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자유시장에서도 기본 식량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북한 정부는 시장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값싼 식량을 공급하는 배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부패로 점철되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백만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시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농가에서는 온 가족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하루 15시간씩 악착같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 53개국 중 37개국이 거의 순수한 농업국가다. 그들의 농업은 유럽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서서히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수억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범이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 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유엔의 ‘밀레니엄 목표’는 인식과 지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실은 살인적인 부정의로 물들어 있다. 풍요가 넘쳐나는 행성에서 날마다 10만 명이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은,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북반구 국민들의 의식은 이런 상태를 오래 참지 못할 것이다. 변화된 의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기아로 인한 폐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서문 중에서 - 장 지글러

## ■ 마/음/으/조/워/는/글

# 하 나

내가 태어난 때부터 사랑하는 조국은 둘이었네  
슬픈 역사가 이 땅을 갈라도 마음은 서로 찾았네 불렀네  
불을 비빌까 껴안을까 꿈결에 설레만 가는 우리  
처음 보아도 낯익은 얼굴아 가슴에 맺힌 이 아픔 다 녹이자  
함께 부르자 함께 부르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들릴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어린 품속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였네  
오랜 세월에 목이 다 말라도 마음은 서로 눈물로 적셨네  
불을 비빌까 껴안을까 반가와 이야기 나눈 우리  
처음 보아도 낯익은 얼굴아 이 땅에 스민 이 눈물 다 말리자  
함께 춤추자 함께 춤추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보일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하나로 되자 하나로 되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 리명옥(재일 조선 민족학교 졸업생) 작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재해현금** : 오늘 예배 중에 수해를 만난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한 현금을 드립니다.
2. **교사교육** : 오늘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3분기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연합운동'이고 강사는 기독교청년아카데미의 안기홍 사무국장입니다.
3.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집회는 울산지방 삼산중앙교회 정해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4. **연합속회** : 이번 주 금요일(7일) 오전 11시에 속회가 개학을 합니다.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가나안 속, 식사준비 : 예루살렘 속
5. **성서학당** : 9월 13일에 개학합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예수는 누구인가?'(김기석 목사)를 주제로, 저녁에는 '웨슬리 설교 강독'(김재홍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6. **통일학교** : 기독교청년아카데미가 주최하는 통일학교가 9월 11일(화)부터 8주 동안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 동안 미루어왔던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 식당 봉사 : 나사렛속

토요봉사(8일): 구명자 송양진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인걸(앞당긴 생일), 노순옥(생일감사)

<새교우 소개>

2729 권아주 소속 : 청년부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